

##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늘은 로마서 3:19 부터 22 절까지를 가지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3 :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 :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4 :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8-3:19 까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 전인류의 보편적 죄를 열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로마서 3 : 10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 :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 : 12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무슨 근거에 의해 판단했을 때 인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율법에 의하면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따라 살지 않으니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 I. 율법의 기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나는요, 이 세상에 태어 난 후 이세상에 율법이 있다는 말 듣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슨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이방인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에게 아주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을 모르고 살았지 율법없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2 :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로마서 2 :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양심의 작용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면수심을 가진 파렴치한이라도,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은 이상, 언제나 그 마음 속에서 울려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양심의 증거에 의해,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 II.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알라 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 율법은 나쁜 것이구먼요. 사람을 심판하는데 쓰려고 만들어졌으니.”

이런 주장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 주어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 :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앞에는 가시 철망과 함께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시오 죽습니다.”

그러나 어느 짓곳은 사람이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 절벽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이 넘어 가지 말라는 팻말 때문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팻말을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팻말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팻말을 넘어 간 사람의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을 넘어간 사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양심이 증거하는 율법의 위법을 피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 III. 의인은 없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 말은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11 : 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벧전 1:15)고 하시며,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공자님처럼, 부처님처럼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인도의 성자 간디를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독립  
운동을 이끌어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간디는 40 대 초부터 부인과의 합의  
아래 절제에 들어 갔습니다. 이런 절제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영국의 미녀들이 간디를  
유혹하려고 인도로 왔습니다. 간디는 그런 유혹을 성공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마하트마’ 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간디는 타고난 육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지만 육성이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육성을

잘 절제하였지만 육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제거되지 않은 육성이기 때문입니다. 간다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 이런 위대한 영혼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입장에서 인간의 진상을 알려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육성은 육체의 절제와 몸의 고행, 자의적 겸손 등을 통해 육성이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선행을 통하여 그 인간의 죄악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2 :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성을 제거하는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죄를 안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 : 10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 :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 : 12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IV.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시편 9 : 7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고 하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인류의 모든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로마서 2 :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계시록에는 심판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 :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 :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 :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 :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인류에 대한 어둡고 캄캄한 암울한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불과 유향이 타는 못에 던져 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에 대한 절망적 선언인 것입니다. 이 절망의 벽에 부딪혀 본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의 참의미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 :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 V. 새로운 전환

이렇게 절망적인 인류의 운명에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롬 3:20 에서 시작됩니다.

롬 3:20 은 바울의 서신에서 있어서 논리적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인류의 비관적 운명을 바꿀 운명의 전환점입니다.

로마서 3 :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율법외에’ 라는 말입니다.

‘율법외에’ 이 말은 대표적인 뜻은 separately 인데, 요한 복음 2:7 에는 이 말이

요한복음 20 : 7    또 머리를 찢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곳에 개켜 있더라

**John 20:7 (KJV)**

<sup>7</sup>And the napkin, that was about his head, not lying with the linen clothes, but wrapped together in a place by itself.

이 구절에서 ‘판 곳에 개켜 있더라’ 의 ‘판’ 곳이 바로 ‘율법 외에’의 ‘외’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역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역사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2 에서도

로마서 1 :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신약 때 갑자기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 온 것입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거룩으로 인하여 인간으로부터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거룩으로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

지극히 거룩하여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효과적으로 절제를 할수 있어도 제거되지 않는 육성으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 :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했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증보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숯검덩이라도

그 숯검덩이 같은 죄를 대속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함량이 부족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로부터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말로만 선포하시질 않고  
이 땅 위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증거의 확증이며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